전주매일
2021년 8월 4일 수요일

안은영 작가 서양화 초대전

31일까지 JB Dream Gallery서 '행복 + plus' 주제로 작품 19점 전시

서로 어우러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조화로운 세상처럼 시들지 않는 꽃을 보며 공감과 소통이 될 수 있는 초대 전시가 열린다.

전라북도서울장학숙(관장 정종복) 복합문화공간 JB Dream Gallery에 전북출신 작가 안은영 서양화가 초대전시가 오는 31일까지 전시된다.

이번 초대 전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전북 인재들에게 아름다운 꽃을 보며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복을 그리는 안은영 작가의 감성과 매력이 있는 작품으로 19점이 선보인다.

생면부지(生面不知)의 타인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알아가면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듯이 꽃 한 송이 그 자체의 아름다움보다는 한 송이, 두 송이, 꽃송이들이 서로 어우러져 가면서 완성되는 꽃다발의 모습은 흡사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조화로움 그 이상의 매력을 느끼게 만든다.

풍성한 꽃다발을 위해 개개의 꽃송이는 과유불급(過猶不及) 하지 않게 각자의 개성을 뽐내면서 많은 식물과 함께 다발의 빈자리를 조화롭고 풍성하게 메꾸어 더욱 빛나게 한다.

정종복 관장은 "코로나19 대유행에 서울장학숙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북의 인재들이 쉼 없이 달려가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학업에 열중하기에 어려움들이 많다. 침체된 우리 장학숙 입사생들에게 더운 여름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꽃들을 보며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작가와 소통하면서 예술적 소양과 공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라북도서울장학숙 복합문화공간 JB Dream Gallery에 전북출신 작가 안은영 서양화가 초대전시가 오는 31일까지 전시된다.

안은영 작가는 "꽃다발은 다시 피지는 않지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의 소중함, 고마움 그리고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전북의 학생들도 힘들겠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긍정적인 해바라기처럼 친밀한 관계로 소통하고 그림을 보며 마음에 힐링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은영 작가는 원광대학교 및 동대학원 미술교육을 전공하고 현재 3회 개인전을 거쳐, 다수의 그룹전과 한국미술협회 정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라북도서울장학숙은 300명의 입사생과 5급 공채를 비롯, 고시 준비생 64명의 전북지역 인재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으며, 1992년 개관이래 4,600여명의 인재들을 배출하여 각계·각층에서 지역사회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입사생들을 위한 전시를 추진 중이다. 서울장학숙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해 있다.

/유호상 기자

완주군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3일 군청에서 완주지역 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주지역 문화유산 학술조사 협력

완주군-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유재은) 완주지역 문화유산 학술조사 연구를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3일 완주군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날 양 기관은 ▲초기철기 및 마한시대 등 역사 복원을 위한 조사연구 협력·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지역 역사문화의 홍보, 복원정비, 활용을 위한 학술행사 및 행정지원 협력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사업 ▲기타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에 대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완주 상운리유적과 갈동유적 등의 발굴조사와 학술대회 개최 등 지역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제고와 정립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2200년 전 한(韓)문화 발상지 완주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역사 및 정신 재정립 일환으로 만경강유역의 선사·고대 문화유산에 대한 지역 특별전 및 학술대회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완주 역사를 재정립하고, 지역 주민 등 대내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SNS 입소문 '빛 바램 춘포' 전시 연장 운영

익산과 군산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소모임인 '빛 바램, 춘4'가 진행하는 '빛 바램 춘포' 전시를 오는 15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2021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있슈 Issue'에 선정된 소모임 춘4는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116번지(춘포4길 66-6) 대장공장에서 프로젝트 발표의 일환으로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SNS를 통해 방문객들의 입소문이 났고, 연장요청이 많아 2주간 전시 연장을 결정했다.

춘4는 사진 찍는 청년 이호영&정대영, 그림 그리는 청년 고진영&장민지가 함께 구성한 소모임이다. 이들이 기획한 전시는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흔적과 해방 이후 근대 농촌지역의 생활상과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인 대장공장(호소카와 도정공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시를 보러 온 관람객들은 "춘포에서 문화생활을 하는 것 같아 너무 좋다", "버려지고 무서웠던 공간이었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 대장공장이라는 공간이 아름다운 공간으로 보인다" 등의 평을 남겼다.

가족과 함께 전시회를 방문한 최영규 도의원은 "흔하지 않은 전시회가 가까이에서 열렸다"며 "시대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진 곳이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문화와 예술로 꽃을 피우려고 한다"고 춘4 전시를 추천했다.

한편 전북문화관광재단의 '2021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있슈 Issue' 사업은 도내 청년들이 주체가 돼 지역 내 이슈, 환경 등을 문화예술로 풀어내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0개 소모임이 선정되어 전시회, 영상제작, 책자발간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문화사업팀(063-230-7452)과 청년 소모임 '빛 바램, 춘4' 담당자(010-2111-917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뮤지컬 '몽연-서동의꽃' 관람료 할인

전북문화관광재단, 28일까지 8000원 관람

전북문화관광재단은 4일~28일까지 전북관광 브랜드공연 뮤지컬 '몽연-서동의꽃'의 관람료를 할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전라북도를 찾은 관광객과 도민 등 모든 관람객이 뮤지컬 '몽연-서동의꽃'을 할인 가격인 8천 원에 관람할 수 있다.

현재, 판소리 댄스컬 '몽연-서동의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적극적인 방역지침을 준수해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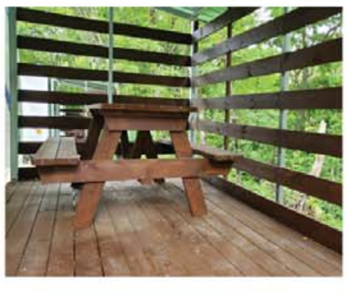
홍승광 공연기획추진단장은 "'몽연-서동의꽃'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라북도를 찾은 관광객에게는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선물이, 도민에게는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예매는 네이버 티켓 및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상설공연추진단(063-230-7488)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